

Valoachen!

Banglatti
Final Report

김진경
황하람
신지혜
오효정



Introduction



Shiuli Rang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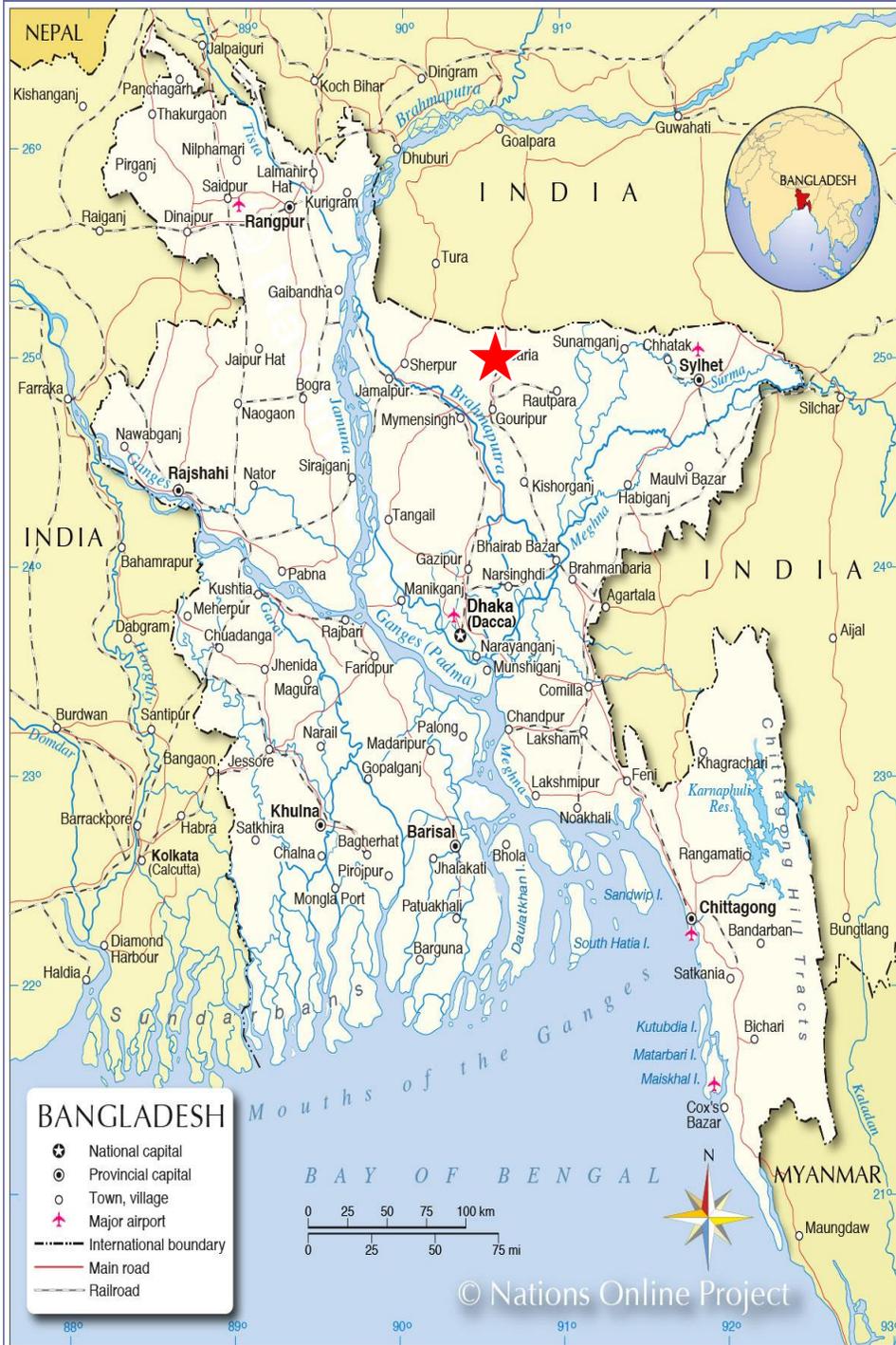
Dipa Rema



Ajoy Sangma



Shojol Sangma



Banglatti

다하파라

(1)다하파라 대안학교 (NFPE)

(2)다하파라 클리닉

비리시리

(1)Youth 활동

(2)로컬 커뮤니티 활동

+ 비리시리 그린 프로젝트 + 350PPM 캠페인



1. 다하파라

(1) 다하파라 대안학교 (NFPE)

(2) 다하파라 클리닉

1. 다하파라

(1) 다하파라 대안학교 (NFPE)

비리시리에서 자전거로 40분,
조그만 시골 마을 '다하파라'에 있는
NFPE 대안학교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땀 흘리며 출근하는 우리에게 다가와
자전거를 함께 밀어주는
20명의 예쁜 아이들



"외국인 선생님 네 명이 무엇을 하면 좋을까?"

1. 다하파라

(1) 다하파라 대안학교 (NFPE)

영어 (월, 김진경)

*class 1 - 알파벳 쓰는 법, 색깔(원색)

*class 2 - 기본회화 및 자기가족 이름쓰기

영어 애니메이션 (월, 오효정)

*class 1, 2 - 영어애니메이션을 통한
영어로 익숙해지기.
표현 및 단어 익히기



1. 다하파라

(1) 다하파라 대안학교 (NFPE)

수학 (화, 황하람)

- *class 1 - 방글라 숫자 읽기, 쓰기 연습
- *class 2 - 방글라 숫자 읽기, 쓰기 연습 및 간단한 사칙연산 연습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음악 (화, 오호정)

- *class 1, 2 - 방글라 동요, 영어동요 익히기
음악수업과 병행한 신체활동



1. 다하파라

(1) 다하파라 대안학교 (NFPE)

미술 (목, 신지혜)

*Class 1, 2 통합-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존중,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통해 상상력 및 창의력 자극.
다양한 교구, 재료 사용과 동시에 성취감을
줄 수 있는 수업 진행



1. 다하파라

* 다하파라 NFPE 피크닉

일시 : 4월 12일

장소 : 다하파라 NFPE 운동장

일정 : 10:00 간식먹기 & 스트레칭
 11:00 게임
 12:00 보물찾기, 영어&수학퀴즈,
 페이스페인팅
 13:00 점심식사



1. 다하파라

* 다하파라 NFPE 운동회

일시 : 7월 17일

장소 : 다하파라 NFPE 운동장

일정 : 10:00 풍선아트 및 놀이
 12:00 간식먹기
 12:30 학교 유니폼, 우산선물

*우천으로 일정변경



1. 다하파라

(1) 다하파라 대안학교 (NFPE)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으면..."

진주 YMCA 협력 보수공사

확장된 창문과 새롭게 교체한 천장

→ 밝아진 교실, 쾌적한 환경

아동용 화장실

→ 화장실 이용교육을 통한 습관화



1. 다하파라

(1) 다하파라 대안학교 (NFPE)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었으면..."

오래된 책걸상 교체

20년이 지난 낡은 책걸상

→ 아이들 몸에 맞는 새로운 책걸상





1. 다하파라

(1) 다하파라 대안학교 (NFPE)

(2) 다하파라 클리닉

1. 다하파라

(2) 다하파라 클리닉

소똥 구멍 만들기



이곳 저곳 방치된 소 배설물들,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



각 가정을 방문하여
소똥 처리구멍을 파고 사용홍보

1. 다하파라

(2) 다하파라 클리닉

서베이 및 마을지도제작



다하파라에는
어떤 가족들이 모여 살고 있을까?



3개 국어 서베이 자료집 제작
마을지도 제작 후 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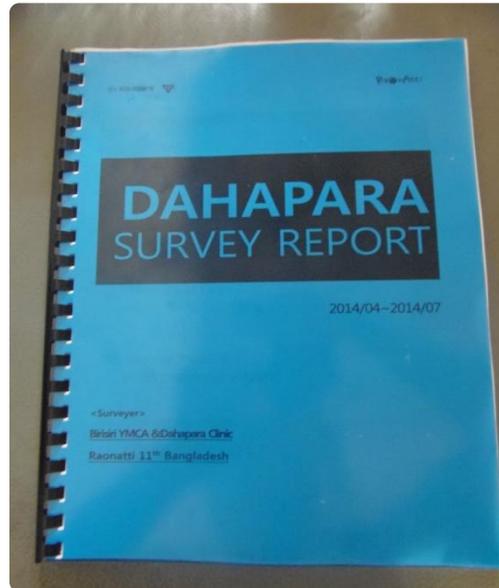
이전 기수 서베이 자료 총정리

1. 다하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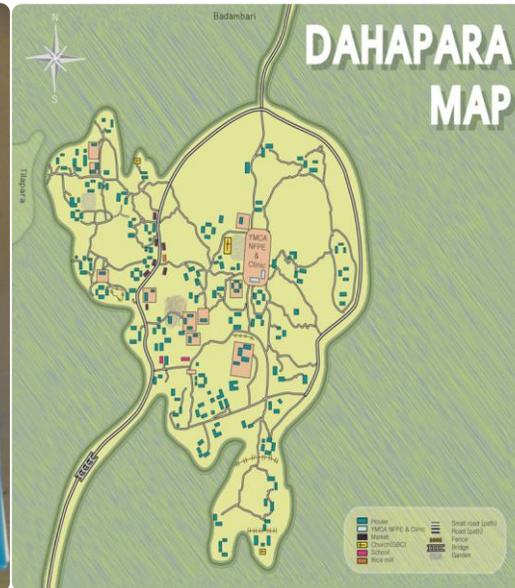
(2) 다하파라 클리닉



다하파라 85가구
Survey



3개 국어 Survey 자료집 제작, 마을지도 제작



Survey자료집, 지도 게시



2. 비리시리

- (1) Youth 활동
- (2) 로컬 커뮤니티 활동

2. 비리시리

(1) Youth 활동

순수한 미소가 매력적인
우리의 이웃이자 친구
비리시리 Youth들

한국 친구들이 네 번째인 Youth들에겐
라운아띠의 활동이 친근하다

"우리, 이제 뭔가 함께 하고 싶은데...!"



2. 비리시리

(1) Youth 활동

프로그램 → 클럽

라운아띠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프로그램 No!
국적이 다른 우리가 함께하는 '동아리', '클럽' Yes!



CLUB KEEPER 제도

방글라데시 C.K.와 한국 C.K.가 함께 만들어가는 클럽



*Youth club

외부 포스터 홍보

YMCA Youth 뿐 아니라 마을의 다른 Youth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2. 비리시리

(1) Youth 활동

*Youth club

MUSIC Club

ART Club

MOVIE Club

Cultural Interaction Day



- 서로의 노래 배우기
- 교회 특송
- 매주 화요일



- 다양한 미술활동
- 350PPM 캠페인 갤러리
- 매주 토요일



- 영화 시청 및 토론
- 매주 일요일



- 한,방글라 음식 교류
- 매달 셋째주

2. 비리시리

(1) Youth 활동

지속성

라온아띠가 돌아간 뒤에도
Youth들이 자체적으로 결집되어
다양하고 유익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으면

연관성

Youth 클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획하는 모든 활동을 거미줄처럼
언제나 Youth들과 함께! 그들의 생각이 최우선!

2. 비리시리

(1) Youth 활동

5월 2일



장소 : 비리시리 YMCA
 주제: 가로 커뮤니티와
 성문화 & 청년들의
 변화를 위한 도구들

5월 9일



장소 : 비리시리
 Baptist 교회
 주제 : 청년의 아름다운
 삶과 미래

6월 12일



장소 : 비리시리YMCA
 주제: 환경의 날,
 350PPM

*Youth SEMINAR

7월 20일



장소 : 비리시리 YMCA
 주제: 자연재해와
 우리의 행동

2. 비리시리

(1) Youth 활동

"우리의 의도가 Youth들에게도 잘 전해졌을까?"

클럽에 대한 Youth 의견 수렴
→ 12기에 전달

- 1) 좀 더 쌍방향으로 진행가능한 배드민턴 클럽
- 2) 축제기간을 함께 즐길 뮤직클럽



2. 비리시리

(1) Youth 활동

"우리의 의도가 Youth들에게도 잘 전해졌을까?"

클럽이 아니라면
→ 세미나? 다양한 프로젝트?

- 1) 유익한 활동을
함께 기획 할 수 있는
세미나, 다양한 프로젝트





2. 비리시리

(1) Youth 활동

(2) 로컬 커뮤니티 활동

2. 비리시리

(2) 로컬 커뮤니티 활동

아름다운 자연 아래
 무슬림, 크리스천, 힌디가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우리의 로컬 커뮤니티 '비리시리'

3개월 간 가로족 가정 내에서
 배울 수 있었던 끈끈한 가족애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동네



"우리가 사는 곳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2. 비리시리

(2) 로컬 커뮤니티 활동

삶의 터전 가꾸기

우리가 매일같이 머무는
YMCA 캠퍼스를 위해
페인팅, 클리닝, 가드닝, 에셋 정리



2. 비리시리

(2) 로컬 커뮤니티 활동

커뮤니티 방문

이슬람 & 힌두 커뮤니티 방문
서로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와
문화 교류



2. 비리시리

(2) 로컬 커뮤니티 활동

축제 즐기기

방글라력 새해 (포헬라보이삭),
이스터 선데이, 결혼식
마을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기 & 하나되기



2. 비리시리

(2) 로컬 커뮤니티 활동

홍콩 UNI YMCA와의 만남

5월 2일~7일, 홍콩 UNI YMCA와 함께한
강둑쌓기

수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뿌듯함
단기봉사단을 받아들이는 현지의 입장?!



2. 비리시리

(2) 로컬 커뮤니티 활동

보그라 YMCA 방문

6월 22일~27일, 4명의 youth와 함께한
방글라데시 이해하기

우물 안 개구리는 no!
다양한 모습, 리얼 방글라데시 알아가기



비리시리 그린프로젝트

Birisiri Green Project

비리시리 그린 프로젝트

이 쓰레기는 대체 어디서 왔을까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없는 방글라데시.
거리 곳곳에 더럽게 나뒹굴고 있는 각종
쓰레기 오물들과 코를 찌르는 악취.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 3,4월 보고서 참조
'비리시리 그린 프로젝트' 기획서 참조



비리시리 그린 프로젝트

쓰레기통을 설치해보는건 어때?

Q1. 정말 현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까?

- 1 / 곳곳에 널려있는 쓰레기는 토양과 물을 오염 시키고 위생적인 문제와 연결될 수 있어.
- 2 / 쓰레기통이 없는데 쓰레기를 길에 버리지 말라고 외치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야.
- 3 / 환경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 생각 속에 중요한 문제로 전체적으로 퍼져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전 기수들의 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 문제임을 인지하고 있어.

Q2. 우리가 떠난 후에 무용지물이 되면 어떡해?

- 1 / 우리가 독립적으로 설치하기보다 시장 위원회측과 이야기를 나눠보자.
- 2 / 시장 위원회가 고용한 청소부가 아침마다 쓰레기통을 비워준다면, 우리가 열심히 홍보를 맡자. (클리닝 프로그램, 포스터 부착 등)
- 3 / 지속적인 클리닝 프로그램이 youth들에게 조금이라도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쓰레기통 사용이 사람들에게 점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해.

비리시리 그린 프로젝트

4월 20일

1 / '비리시리 그린 프로젝트' 제안.

비리시리 Y 총장님께
실효성과 현지 사람들의 입장 여쭙기.

2 / 시장위원회와 미팅

우리가 떠난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지.
마켓 청소부는 어떤 방식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것인지.

4월 24일

쓰레기통 찾기.
및 예산책정
(650TK x 6)

5월 4일

NCYB로부터
자금 조달

비리시리 그린 프로젝트

5월 7일

Youth들과
쓰레기통 페인팅



5월 12일

쓰레기통
전달식



비리시리 그린 프로젝트

5월 21일

시장위원회와 미팅

쓰레기통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미팅



5월 23일

첫 클리닝 클럽

매주 금요일 7시, Youth 클리닝 클럽



비리시리 그린 프로젝트

5월 28일

쓰레기통 홍보 포스터 부착

시장 가게 방문 및 쓰레기통 사용 협조 부탁



6월 중순

쓰레기통 추가 설치 요구

Utrail 시장 북쪽상인들의 쓰레기통 추가 설치 부탁
인접한 simultoly 시장의 쓰레기통 설치 부탁

라운아띠의 일방적인 프로젝트가 되지 않도록
시장에 쓰레기통 구입비용의 일부를 부탁해볼까?

비리시리 그린 프로젝트

7월 10일

시장위원회 대상 프레젠테이션

Utrail, Simultoly 시장위원회 초대 및
그린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 협조 요청



비리시리 그린 프로젝트

7월 15일



Simultoly 시장 쓰레기통 설치

Simultoly 시장 방문 및
대형, 소형 쓰레기통 설치

가게 하나 당 소형 쓰레기통 하나 설치
(가게 주인이 쓰레기통 사용에 대한 서약서 작성)

비리시리 그린 프로젝트

7월 18일

Utrail 시장 쓰레기통 추가 설치

Utrail 시장 방문 및
대형, 소형 쓰레기통 설치

가게 하나 당 소형 쓰레기통 하나 설치
(가게 주인이 쓰레기통 사용에 대한 서약서 작성)



비리시리 그린 프로젝트

7월 19일

쓰레기통 사용 홍보 포스터 부착 (2차)

Utrail, Simultoly 시장 방문
쓰레기통 사용 홍보 포스터 부착



비리시리 그린 프로젝트

7월 22일

감사 세레머니 & 감사 증명서 수여식

지역 신문사 취재 및 기사화



비리시리 그린 프로젝트

그린프로젝트 영역 확장(지속성)
(Utrail시장 추가설치, Simultoly시장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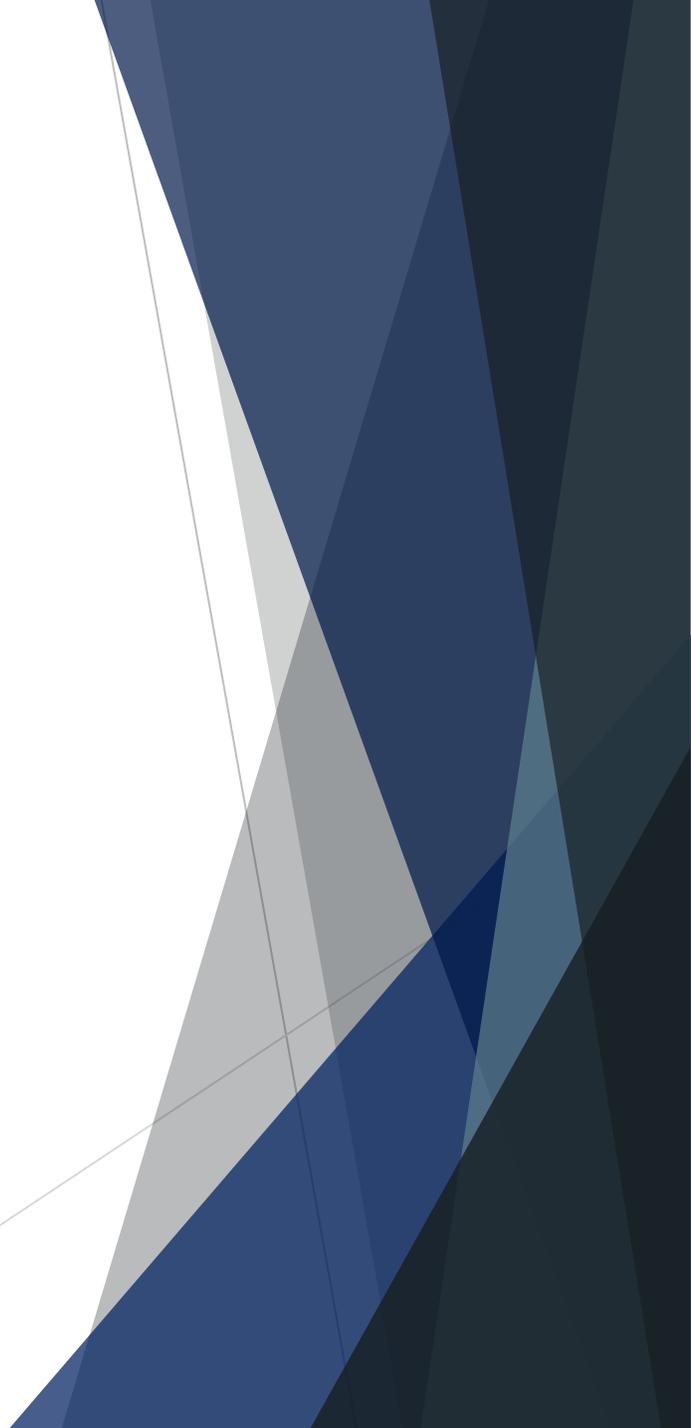
Durgapur시장
(쓰레기 이슈 파악 및 쓰레기통에 대한 필요성 인지)

나비효과

지역 언론사의 취재 및 기사화
(쓰레기 이슈 공론화 및 쓰레기통의 필요성 전파)

비리시리 YWCA 동참
(시장 클린 프로그램 실시)

350PPM 캠페인 in Bangladesh



350PPM 캠페인

지속성

350PPM 캠페인이
환경의 날 단 하루로 끝나지 않았으면!
보다 지속적으로 캠페인 활동이 지속되었으면!

연관성

350PPM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과 연결되어
더 넓게 퍼졌으면!

350PPM 캠페인

2014 FINAL



RAONATTI 11th Batch
BIRISIRI YMCA, BALGLADESH

350PPM 캠페인

다하파라 에코수업

4월 중

In 다하파라 NFPE

- 미술수업 / 에코백 만들기
- 음악수업/폐품 활용한 악기 연주



350PPM 캠페인

1차 마을 홍보

4월 14일
In 비리시리

- Bangla New Year's Day
(포헬라보이삭)
- 페이스페인팅을 통한
350ppm 홍보 및 모금활동



350PPM 캠페인

공교육 파견

5월 7일, 11일
In Ideal Highschool
(class 8,9,10)

- 지구온난화와 350ppm 캠페인
- 북극곰 체험활동,
나만의 식목일 정하기,
환경 선언문 작성 등



350PPM 캠페인

Youth Club

5월 24일
In ART Club

- 2차 마을홍보를 위한 갤러리 준비
- 과자봉지를 활용한 나비 만들기,
클레이 작품 만들기



350PPM 캠페인

2차 마을홍보

5월 30일

In Utrail 시장

- 350ppm 캠페인 홍보 및 모금
- Art Club 갤러리
- Flee Market 부스 설치



350PPM 캠페인

아시아 3개국 연대 나무심기

6월 6일
In 비리시리

- 홍콩, 방글라데시, 한국 청년들의 나무 100그루 심기 활동



350PPM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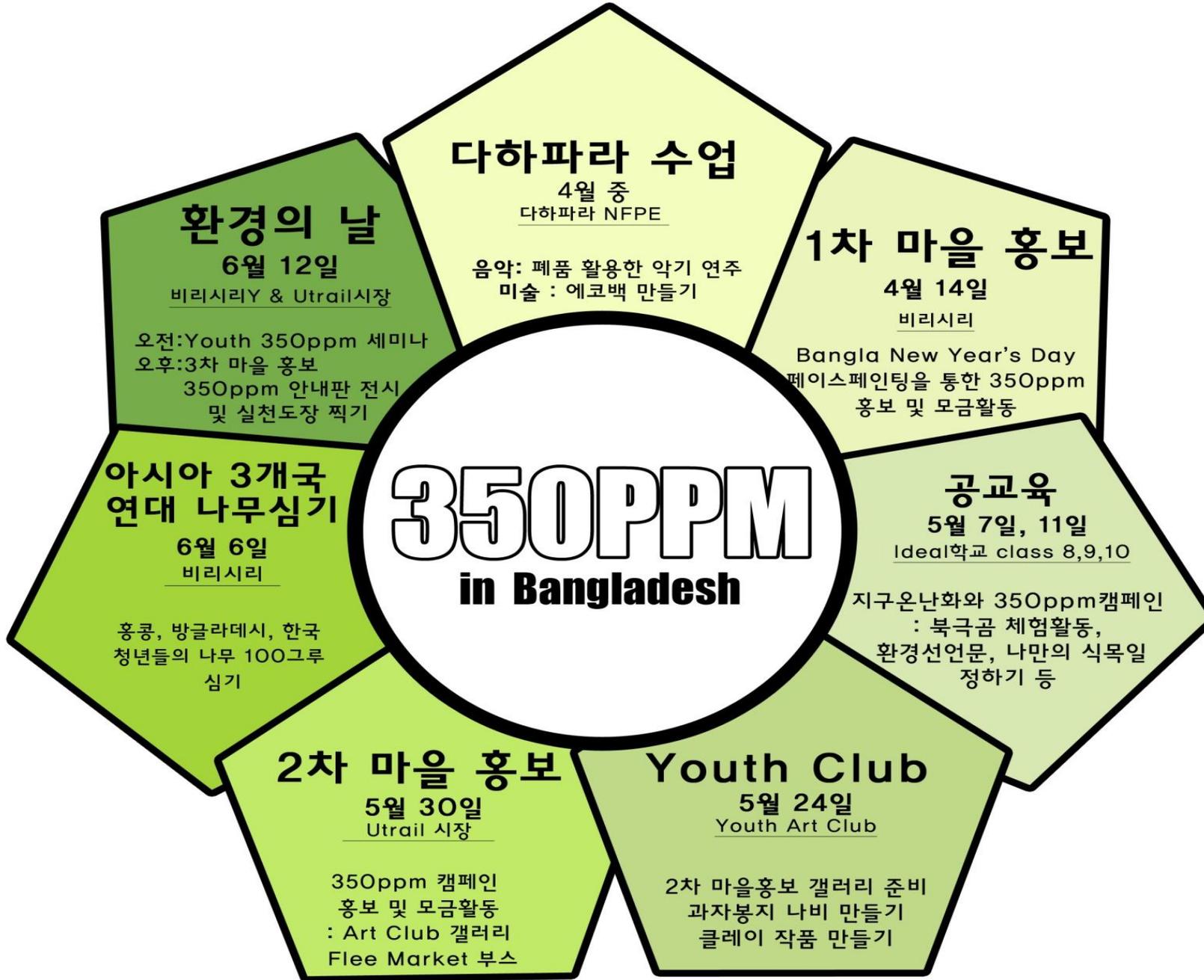
환경의 날

6월 12일

In 비리시리YMCA & Utrail시장

- 오전 / Youth 350ppm 세미나
- 오후 / 3차 마을 홍보
350ppm 안내판 전시
및 실천도장 찍기







350PPM in Bangladesh

* '방글라띠'가 진행한 모금 및 사용내역

NO.	항목	비고	수입	지출	합계
1	포헬라보이샤 모금		355		355
2	2차 마을홍보 모금		3,059		3,414
3	Youth 간식			260	3,154
4	해피빈 모금		10,205		13,359
5	김병재 차장님 기부		3,925		17,284
6	다하파라 책걸상제작	총 17,870TK 중 목재 구입 및 운송비용		11,700	5,584
7	다하파라 아동용우산	130 X 20개		2,600	2,984
8	소형 쓰레기통	40 X 70개		2,800	184
9	대형 쓰레기통 대금	Simultoly 시장	200		384
10					



방글라피 마지막 이야기...

Ajoy 김진경

내 생애 처음으로 해외로 나아가는 것도 아닌데 마치 처음 가보는 것 마냥 가슴속이 간질간질하다.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곳은 주위 사람들에게서 많이 들어본 적도 없었고, 여행을 갔다는 사람도 없었기에 나에게서는 그저 미지의 땅이었다. 출발하기 전 한 달 국내훈련, 전 기수와와의 만남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었지만 직접 방글라데시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과 만나보면 모든 것이 다르리라고 생각을 많이 했다. 포스터의 글귀대로 내 생애 가장 뜨거운 날들을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냥 미적지근한 날들로 보내다 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많이 했다.

마지막 3일의 날을 나머지 29명의 좋은 친구들과 함께 보내고 마음 한가득 설렘을 안고 우리는 3월5일 Malaysia Airline 비행기에 탑승했다. 물론 같은 비행기에 India, Sri lanka팀도 함께 타서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심심하지는 않겠지만, 막상 헤어지려니 아쉽기도 하다. 그들도 우리처럼 많은 생각들을 안고 가겠지. 한국의 문명화, 기계화된 생활들, 익숙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내 앞에 펼쳐진 세상을 맞이하러 출발한다.

밤늦게 수도인 Dhaka Airport에 도착해서 바로 Savar YMCA 트레이닝 센터로 향하는데 몸도 마음도 오랜 비행으로 인해서 지쳐 녹초가 되었다. 3시간의 시차도 있고, 밤늦게 도착한지라 지혜와 효정이, 하람이도 모두 차 안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쉬면서 달리는 차 안에서 바깥세상 구경을 하면서 다시 설렘이 몰려왔다. 내가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바로 창문밖에 두고 있다는 것, 우리를 마중 나온 두 명의 YMCA 스태프들도 그저 친구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다. YMCA가 익숙한 나로서는 불편한 점이 없겠지만, YMCA를 접해보지 못한 세 단원들은 어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불편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하는 괜한 걱정도 해본다.

Savar와 Dhaka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수많은 설렘과 이전 기수들이 얘기 해주었던 것들과 비교해보며 방글라데시의 도시를 만끽하였다면, 3월 14일 한명의 Birisiri 친구와 함께 벤을 타고 우리의 터전으로 향한다. 가는 와중의 차안에서의 8시간 동안 시끄럽게 떠들어 보기도 하고, 앞에 타고있는 Youth친구에게 Birisiri에 대해서, 다른 멤버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물론 대부분의 시간은 잠을 자겠지만... 지난 일주일간 본 방글라데시와는 사뭇 다른 방글라데시가 보이기 시작했다. 비리시리로 들어선 그 순간부터 우리의 눈앞에는 초록의 세상이,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순록(純綠)의 세상이 펼쳐져 있다. 우선 한 달간은 YMCA에서 지내게 된다. 초광속 인터넷처럼 흘러가던 한국의 삶에서, 이런 저런 계획들을 함께 한국에 비하면 슬로우모션처럼 흘러가는 방글라데시의 삶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내 모습들이 보인다. 정신없이 유스들과 친해지다 보니 어느덧 시간은 흘러가 4월이 끝이 나버리고, 두 달간의 우리 모습을 돌아보니 어떤 모습은 한국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내 체중을 제외하곤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왜 체중은 변하지 않는 건지 원...)

5월1일, 나에게는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 정말 한국인 김진경은 이 세상에서 3개월간 잠시 사라진 것이다. 나에게도 새로운 가족이 생겼고, 반쪽짜리 Ajoy가 아닌, 새로운 나의 성(姓) Sangma가 생겼다. 나도 누군가의 아들 동생 삼촌이 된 것이다. 나에게도 이 웃이 생겼고, 완벽한 비리시리 사람이 되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마냥 평화로운 마을은 아니라는 것이 가족이 생겨난 이후부터 조금씩 보이고 들리기 시작했다. 방글라데시에서도 가로족과 방할리 민족사이에 깊이 패어있는 상처들과 아픔들, 그런 것들이 처음 왔을 때는 마냥 행복하게만 보이던 비리시리에서도 일어난 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오랜 역사와 종교의 차이에서 생기는 차별들, 정부에서 주는 차별 등 들을수록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온다. 젊은 유스 멤버들에게서는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들, 가족들을 통해서 이 민족의 이야기를 들었다.

6월부터 지긋지긋한 우기의 시작,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비를 부어댄다. 비가 오면 자연스레 전기가 나가버리는 비리시리에서 가족들과의 시간이 자연스레 많아진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 어떠한 일정도 할 수 없기에 가족들과 지낸다. 쌀 속에 돌이나 거가 떨어져 나가지 않은 쌀알들을 일일이 손으로 골라내며, 아버지와 농담을 한다. 뒷집에 사는 Rubel은 매일같이 우리 집에 와서 잡담하고 놀면서 가끔 기분 낸다며 한국요리를 하면 맛이 시다, 짜다 그러면서도 3그릇을 비운다. 친구에게 요리 해 먹이는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7월 마지막 한 달을 남기고 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았다, 우리 시장을 위해서 쓰레기통을 만들어 처음으로 그들에게 공공장소 청결의 중요성을 알리려 노력하였고, 350PPM이란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사람들에게 알렸으며, 유스들과 함께 하는 클럽들을 개설하여 사람위에 사람, 사람 아래 사람이 없는 평등한 위치에서 함께 하였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었다. 가족들, 비리시리 친구들, 마을 사람들, 다하파라 학교 아이들, 모두가 우리에게는 사랑이었다. 우리는 5개월이라는 시간을 달려왔다.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화도 나지만, 그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Shojol 황하람

2014 FINAL

이 에세이를 마지막으로 방글라데시에서의 삶에 마침표를 찍게 된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참 새롭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던 그날 저녁의 기억과 감정이 아직도 생생한데, 5개월이 지난 지금의 나는 꼭 집어서 말할 순 없지만 분명 변했다.

주마등처럼 지나간 150여일을 돌이켜보니 나름 잘 살아냈구나 싶다가도 마음 한 편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던 내 모습에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인생이라는 것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 두렵고 불안하지만 그래서 더 역동적이고 흥미진진하다는 것을 라온아띠를 통해 새삼 깨닫게 되었다. 사실 2014년의 5개월이라는 시간을 이곳 방글라데시에서 보내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정말 운명처럼 갑작스럽게 내 앞으로 다가와 나를 한 층 더 성장시켜준 이 기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한다는 말 하나를 붙잡고 이곳에 왔지만 사실 이곳에서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너무나도 덥고 습한 날씨, 하루에도 수차례 반복되는 정전, 쓰레기 악취와 흙먼지, 주부습진을 불러일으키는 손빨래, 음식과 물로 인해 5개월 내내 달고 살았던 배앓이 등 세세히 열거하자면 정말 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자원 활동이라는 사명아래 지속성과 연계성 그리고 현지사람들의 생각이라는 세 키워드를 붙잡고 라온아띠의 활동 하나하나를 고민하며 머리를 쥐어뜯었던 날들, 모든 과정을 현지인들과 함께하면서 활동의 지속을 위해 이리저리 발로 뛰던 날들, 일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진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숱한 과정을 그들과 함께 해나가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다. 빨리 가라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던 아프리카의 속담이 바로 이곳 방글라데시에서의 삶 그 자체였다.

RAONATTI 11th Batch
BIRIRI YMCA, BANGLADESH

순수하고 밝은 청년들. 언제나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에 지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반성도 참 많이 했다. 소소한 재미에 함께 웃음 짓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자연을 누릴 줄 아는 비리시리 친구들을 보면서 내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생각해 보면 내가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화려하고 거창한 그 어떤 것보다도 소소한 일상 속에서의 작은 것들이었다.

사랑스러운 다하파라 NFPE 아이들은 이미 시꺼멓게 때가 타버린 내 마음을 맑게 씻어주었다. 다하파라 NFPE로 가는 길은 뜨거운 햇볕아래 자전거를 타고 2시간을 왔다갔다해야하는 짧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고생 끝에 기다리고 있는 천사같이 예쁜 아이들의 미소는 가뭇물에 단비와도 같았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던 다하파라 NFPE 선생님과 다하파라 CLINIC의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따뜻한 마음은 내 가슴 속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을 것 같다.

이곳 비리시리의 밤하늘은 정말 별이 쏟아지면 어쩌나 싶을 정도로 반짝이는데 카메라는 좀처럼 담지를 못했다. 1219m 산꼭대기에서 보았던 군 시절의 밤하늘이 한국에서 보았던 최고의 밤하늘이었다면, 비리시리의 밤하늘은 한국에서의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가히 놀라웠다.

어둠을 헤집고 집을 찾아가는 길은 사실 닭살이 돋고 소변이 마려울 정도로 무서웠지만, 반딧불이가 날아다니고 풀벌레가 울며 새가 지저귀는 그리고 은은한 꽃향기가 코를 즐겁게 해주는 어둠 속 감각의 향연은 평생 내 가슴에 머무를 것이다. 길을 걷다가 내 발길을 멈춰 연신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던 비리시리의 구름과 하늘, 강, 해질녘과 같이 자연이 내게 선물한 풍경 그리고 길을 지날 때마다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네던 사람들과 그들의 밝은 미소를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다.

무엇보다 나는 이곳에서 가식적으로 살지 않으려고,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으로 살다가려고 했다. 그저 어느새 자연스럽게 내가 이곳에 묻어있기를 바랐다. 더불어 나또한 이곳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려고 했다. 이곳에서는 이 사람이 예쁜지 못생겼는지, 잘사는지 못사는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와 같은 부수적이고 계산적인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머리가 아닌 그저 가슴으로 사랑했고 그들 또한 나에게 그러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 그들은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이 되어있었고 이곳 방글라데시의 시골 마을 비리시리는 내 마을이 되었다.

나는 이곳에서 물질의 경제력과 마음의 경제력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더 여유롭고 더 풍요로운 마음을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에게서 매일같이 느낄 수 있었다. 모든 것이 물질의 논리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도 이들처럼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부자인 사람이 되고 싶다.

일방적인 잣대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일방적인 기준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매우 오만한 발상이라는 것도 배웠다. 우리와는 다른 그들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고 난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마음을 나누며 함께 의미있는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결국 한국이든 방글라데시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다 똑같았다.

돌이켜보면 방글라데시에서의 삶은 내 인생 최고로 따뜻하고 뜨거웠던 시간이었다. 지구 다른 곳에 내가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지금 당장 그들을 볼 수 없더라도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집이 그리고 가족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안정과 평화를 준다. 네 집 내 집을 자연스럽게 왕래하며 한 가족처럼 지내는 이곳 비리시리의 친구들과 마을 이웃들이 내 친구이고 내 이웃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덧붙여 지난 5개월 동안 울고 웃으면서 모든 방글라데시에서의 삶을 함께할 수 있었던 우리 팀원들에게 참 고맙다. 큰 다툼이나 별다른 마찰없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역대 라온아띠 그 어떤 팀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최고의 팀워크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다. 매일 밤 수많은 고민과 생각을 나누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었고, 각자가 지닌 장점을 십분 발휘하여 일을 조화롭게 잘 해나갈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의 추억을 되새기며 함께 웃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참 소중하고 감사하다.

지난 5개월의 하루하루를 선명하게 그리고 세세하게 모두 다 기억하고 싶은데 이 모든 시간들이 몽똥그려져서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되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다. 한국에서는 좀처럼 느껴본 적이 없는 진심과 마음들을 이곳 방글라데시에서는 차고 넘치도록 느꼈다. 내 손을 꼭 잡아주시던, 내 머리를 따뜻하게 쓰다듬어주시던 그 손길을, 그 마음을, 그 기억을 절대 잊지 않고 싶다.

마지막으로 그저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지난 5개월 동안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그 누군가의 가슴 한 켠 구석자리에 따뜻한 추억으로 남고 싶다.

Dipa 신지혜

아직도 맨처음 방글라데시 특유의 냄새, 매일 찌렁찌렁하게 울려 퍼지는 모스크사원의 노랫소리, 아침잠을 깨우는 새소리와 뜨거운 햇살이 머릿 속에 그려진다. ‘이곳이 방글라데시구나..’라는 생소함에서 묻어나온 강렬한 첫인상이었다.

(물론 지금은 모스크 사원의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 질 정도로 익숙해졌지만...)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나만 느낄 수 있는 느낌이라는 짜릿함도 있었다.

이렇게 방글라데시의 첫인상이 생생한데 벌써 마지막 에세이를 쓰고 있는 나를 보니 놀라울 따름이다.

비리시리에서의 5개월,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눈이 시리도록 아름답다.’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이나 떠올렸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있으니 나의 시꺼먼 마음은 여과 없이 드러나 부끄러웠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그럴수록 나도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닮고 싶었고 이곳에 녹아들고 싶었다.

귀국을 앞둔 이 시점. 비리시리를 떠올리며 가장 생각나는 것은 역시 ‘사람’이다.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사랑을 받아보나 싶을 정도로, 어디서 이렇게 마음이 예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사람들을 얻었다.

투명하다 싶을 정도로 순수한 사람들 속에서 살며 참 많이 웃었던 것 같다. 마음을 다해 웃었던 순간들이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다.

이렇듯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고 생각했던 말들이 하나 둘씩 가슴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10대가 마약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하는 것이 기적이다.”라는 영화대사를 본 적이 있다.

이곳에서 나는 매일 매일을 기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5개월간 정들었던 비리시리를 떠나는 날, 비리시리와 헤어짐에서 오는 슬픔도 컸지만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이 있는 나의 마을이 생겼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든든한 마음이 더 컸다. 비록 몸은 떨어져있지만 나를 기억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나는 지금의 육체적인 이별은 이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5개월간 그 어떠한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준 나의 사람들이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환한 웃음이 끊이질 않았으면 좋겠고, 항상 행복한 일로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지금 돌이켜보면 5개월 동안 너무나도 고맙고 미안한 일투성이다. 이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하고 비리시리를 떠난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많이 부족하고 막무가내인 나를 이해해주고 넓은 아량으로 품어준 우리 팀원들(진경오빠, 하람오빠, 효정이)에게도 참 고맙고 또 고맙다. 팀원들과 함께 했던 모든 시간들이 커다란 배움의 과정이었던 것 같다.

5개월간의 삶을 모두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나의 에세이를 마치며, 한국에서 살아갈 나에게 바라는 것을 몇 자 적어본다.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 할 수 있는 내가 되길, 한발 앞서 배려할 수 있는 내가 되길, 행동할 줄 아는 내가 되길, 진실로 행복한 내가 되길 진심으로 진심으로 바란다. -2014.8.1, Dipa Rema, in Dhaka, Bangladesh

Shiuli 오효정

지나간 5개월 간, 처음 만나는 것들이 내 것이 되는 과정을 경험한 것 같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 익숙한 나의 사람들이 되고, 처음 경험하는 언어가 내 입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그 처음들을 되돌아보니 아득하고 어색하기만 하다. 이런 헤어짐이 네 번째인 이곳 사람들을 떠올리면, 나의 아쉬움과 슬픔이 괜히 상투적인 것만 같다. 그럼에도 내가 여기서 겪은 기억과 감정들이 무척 각별하기에, 이곳 사람들에게 나도 오래 기억되기를 바랄 뿐이다.

따뜻한 공기가 감도는 비리시리에서 나답게 살고자 노력했고, 더 나은 내가 되게끔 포용해준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 내가 손을 건네면 깍지를 껴 맞잡아주던 사람들, 내가 포옥 안기면 미소로 등을 두드려주던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난 참 행복했다. 떠올리면 미소가 번지는 우리 가족들, 언제나 먼저 다가와준 youth친구들, 시장에 나가면 늘 웃으며 손을 흔들어주시는 아저씨 아주머니들. 더위에 지친 모습으로 걸어갈 때 오토바이와 릭샤를 태워주시던 사람들, 하교길에 훌쩍 망고나무에 올라 망고를 던져주던 꼬마아가씨. 이렇게 말랑말랑한 선의는 전염이 되나보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나 또한 좋은 느낌을 주는 사람이고 싶었다. 나도 어느새 비를 피하는 아주머니께 우산을 씌워 바라다드리는 이웃이 되어 있었고,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잔뜩 사서 집에 들어가는 딸이 되어 있었다. 이런 모습의 내가 은근히 맘에 들었고, 무엇보다 그 사람들이 웃는 게 좋아졌다.

따뜻한 삶 속에는 치열한 고민도 많았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 기대어 골똘히 무언가를 떠올리던 내가, 그 여유가 참 그리울 것 같다. 부끄러운 나의 삶을 돌아보며 스스로 채찍질도, 위로도 하며 참 많은 생각을 했다. 꿈꾸던 20대에 입성해 메말라가는 것도 모르고 스스로 돌보지 못했었던 것들, 정신없이 술한 관계들 속에서 이리저리 헤엄치던 일들..... 여러 개의 감정이 교차하며 나와 과거의 내가 만났고, 앞으로의 나를 꽤 관찮게 상상하는 시간들이었다. 이렇게 끊임없이 고민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어른이겠다는 생각도 든다. 이러한 여유와 생각들을 의도적으로라도 한국의 내 삶 속에 가져다 놓을 수 있다면, 이 시간들은 분명 나에게 오래도록 남아 어른이 되길 지켜보지 않을까. 게다가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 가족, 친구들을 위해 무얼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하며 지난날들을 살았기에 더욱 멋진 시간들이었다. 그들과 더 가까워질수록 나는 더 행복해졌고, 그곳에 더 다가갈수록 나의 생각 또한 아름다워졌다.

라운아띠 단원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행복한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이야기들을 꾸릴 수 있어 참 다행이었다. 무엇보다 선한 사람들이 나의 성장을 지켜본다는 것이 내겐 참 큰 행운이었다. 이 느낌을 꼬옥 안고 나를 더 두텁게 만들어나가고 싶다.

누군가 말하길, '삶에서 하는 선택들이 옳았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게 후회 없는 인생'이라 했다. 이젠 내가 선택한 지난 5개월이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 곳의 아름다움을 안고 더 열심히 살 거다. 어쩌면 '내 생애 가장 뜨거운 날들'은 이제 시작될 것 같다. 그렇게 펼쳐 나가고 싶다.

비리시리라는 아름다운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지난 5개월의 기억이 헛되지 않도록
더 많이 성장하는
방글라피가 되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출국을 기다릴 12기 여러분께도
힘찬 응원을 전하며
최종 보고서를 마칩니다.

- 라온아띠 11기, 방글라데시
‘방글라피’ 일동



2014 FINAL

Ajoy
Shojol
Dipa
Shiuli

RAONATTI 11th Batch
BIRISIRI YMCA, BALGLADESH

Abar Dekha Hobe !